

11월21일(월)/히5:1~10(1)

제목: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론 교리를 가르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그는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한다(1절).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며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다(2절). 그리고 자기도 연약하므로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한다(3절).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4절).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직계 자손으로 세습되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임명하셨다(5절). 대제사장은 사람과 일체되지 않고는 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경험으로 느껴야 하며 그들을 깊이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냉정하거나 쌀쌀맞지 않으시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는 자는 항상 새 삶을 시작하게 된다.

11월22일(화)/히5:1~10(2)

제목: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2)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제사장이시다(6절, 10절).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다(창14장). 멜기세덱은 이런 점에서 신비의 인물이다. 예수님을 멜기세덱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인간 아론 계열에서 세습되는 대제사장직과 구별된다는 뜻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하고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모든 간구를 들어 주셨다(7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가 받으신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셨다(8절). 그는 배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가셨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9절).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과업을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11월23일(수)/히5:11~14

제목: 젓 떼고 밥 먹읍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귀가 둔하여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11절). 그는 여기서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전하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운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귀가 둔하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이해력이 둔하고 배우려는 자세도 부족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도자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려 할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무감각하여 도무지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말씀의 초보적 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며 계속 젓만 찾는 사람이다(12~13절). 젓을 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젓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욱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라고 하였다(14절). 예수를 믿은 지 수 십년이 지나도 조금도 지식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중요하다. 크리스찬은 보다 깊은 성경공부와 보다 깊은 성서강해에 대한 열망과 욕구를 가져야 한다.

11월24일(목)/히6:1~8(1)

제목: 타락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였다(1절). 그는 회개와 하나님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1~2절). 그는 이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시 흔들리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자기가 이것을 다시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무서운 말을 하나 뱉었다. 그것은 한 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님을 모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맛본 사람이라도 한번 타락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다(4~6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편지가 박해시대에 쓰여 졌다는 사실이다. 박해시대에 신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큰 최악이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부정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오늘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 중에는 한 때 열렬히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상실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중에 잘 믿어오다가 회개가 생겨 한 두번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1월25일(금)/히6:1~8 (2)

제목: 예수님을 못 박는 크리스찬

박해시대이지만 예수님을 저버리는 배교행위는 심각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6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비유를 든다. 땅이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땅이 되지만 반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7~8절). 이것은 순교자에게 내려지는 축복과 배교자에게 가해지는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6절의 크리스찬의 타락과 죄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공감할 수 있다. 크리스찬의 악한 행실은 예수님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 “너희들의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매일 질식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거리고 만들고 십자가를 우스개로 만든다. 내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고작 그 정도 값밖에 안 나가가는 거니” 라고 야유를 보낸다. 예수님을 다시 죽음으로 몰아넣는 말이다. 이 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